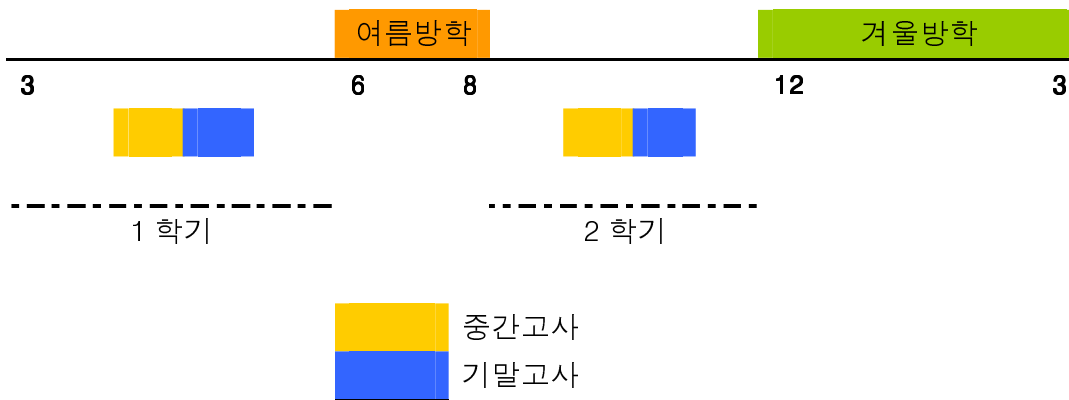


안녕하세요? 김지원 입니다. 정말 오래간만이죠? 4월 중순부터 시험 때문에 바빴어요. 대학교에서는 보통 한 학기에 두 번 시험을 봐요. 4월 중순쯤 보는 시험을 중간고사라고 하고 여름방학 전 그러니까 6월 중순쯤 보는 시험을 기말고사라고 하죠. 중간 이라는 말은 가운데 라는 의미가 있어요. 기말은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고요. 또 고사 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중간에 보는 시험이고 기말고사는 마지막에 보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대학교는 1년에 두 학기가 있으니까, 1년에 4번 시험을 보는 거겠죠?



시험이 끝나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죠.

“ 시험 잘 봤어?” 만약 잘 알지 못하는 친구에게 물어볼 때는 “ 시험 잘 봤어요?” 라고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예의 바른 표현이 되겠네요.

다시 연습해 볼까요?

친한 친구에게는

“ 시험 잘 봤어?” 만약 잘 모르는 친구에게는

“ 시험 잘 봤어요?” 라고 물어보면 되요.

그럼 이번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문장에 넣어서 연습해 볼께요.

중간고사 는 어떤 뜻이라고 했죠? 중간에 보는 시험. 기말고사는 마지막에 보는 시험. 결론적으로 시험이란 뜻이었어요. 그러니까 방금전에 연습했던 문장에 있었던 시험 이라는 단어를 중간고사, 기말고사로 바꾸어 넣으면 될 거예요.

“중간고사 잘 봤어?” 또는 “기말고사 잘 봤어?”



“기말고사 잘 봤어요?” 또는 “기말고사 잘 봤어요?”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.

저한테 물어보고 싶죠? “ 중간고사 잘 봤냐고..”

“ 어 잘 봤어” 만약 제가 시험을 잘 봤다면 이렇게 대답할거예요. 근데 말이에요. 공부 잘 하는 사람치고 자기가 공부 잘 한다고 말하는 사람 없고 돈이 많다고 자기가 돈 많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. 있나? 어쨌던. 제가 아무리 시험을 잘 봤다고 하더라도 제가 직접 “ 나 시험 잘 봤다” 라고 하면 친구들이 “ 재수없다고 하겠죠?” (한국에선 그래요..)

그러니까 끝을 약간 모호하게 끝내보세요. 이건 좀 어려운 문장인데 여러분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거 예요. 까짓 거 이해 좀 못해도 상관은 없죠 뭐. 잘 들어보세요

“ 시험 잘 본 것 같아요” “ 시험 잘 본 것 같아요”

질 문	답변
시험 "잘 봤어요?" 중간고사 + 기말고사 " 잘 봤어?"	"시험 잘 봤어요" "시험 잘 본 것 같아요" "시험 잘 봤어"

시험을 잘 봤다 고 하는데 정말 시험을 잘 봤는지 아니면 잘 보긴 한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서 “~ 한 것 같아요” 라는 표현을 썼어요. “~한 것 같아요” 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. 예를 들어서

“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“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“오늘은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” 라고 할 수도 있죠. 두 문장의 차이점이 뭘까요?

두 문장의 차이점 이해하기

날씨가 좋아요

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

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날씨가 확실히 좋다 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오늘 날씨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확신하지는 않는 거예요. 그래서 “같아요” 라고 말하는 거죠.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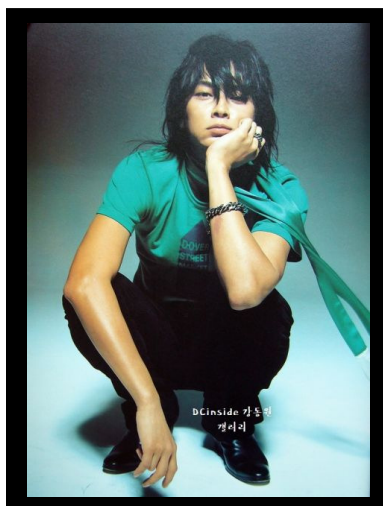
우리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와버렸죠? 아! 저 시험 끝났다고요. 그리고 시험은 “잘 못 본 것 같아요” 이 말을 하려고 했었네요.

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열심히 녹음 할게요. 사진도 올리고 동영상도 좀 찍어서 여러분에게 한국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 드리고 싶어요. 다음 번 에피소드는 꼭 영어로 녹음 할게요!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어로 녹음하면 일주일 동안 일곱 번도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
오늘 끝내기 전에 속어 한마디 배워 볼까요? 요즘 제 친구들은 어떤 일에 너무 지쳐서 힘들고 짜증이 날 때 혹은 너무 좋거나 멋있을 때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.

“우와,,, 진짜 **쩐다 찢어**” 들으셨어요? 다시 한번이요 “우와..진짜 **쩐다 찢어...**”

아시죠? 제가 가르쳐드렸다고 하지 마세요~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



“강동원 찢다 찢어” (무척 멋있다)